

LOCAL

2025년 5월 12일 월요일

영광, ‘전국 최대’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순천, 생애 첫 주택 구매 지원
취득세 최대 300만원 감면

순천시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11일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 소유 이력이 없고 취득 당시 가격이 1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 거래로 구매하는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올해 1월 1일부터는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을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감면 한도가 기존 2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됐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 감면을 받은 자는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받은 취득세(이자 상당액 포함)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편 순천시에서 지난해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1746명이 33억원을 감면받았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함평, 생활인구 유지 총력

전남 유일 ‘고향올래’ 선정

함평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고향올래(GO鄕 ALL來) 공모사업에 전남도에서 유일하게 최종 선정돼 생활인구 유지 기반 마련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총사업비 20억원을 확보한 가운데 대동면 월송리 소재 65년 된 전통가옥을 활용해 2026년 말까지 생활인구 거점 공간을 조성하고 인문학 중심의 체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체류 프로그램은 인문학 강좌를 운영 중인 ‘호점몽가’를 중심으로, 전통음식 체험(매동포레스트), 도예 공방(자기바라기) 등 대동면 내 문화 자원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커뮤니티 운영과 지역민과의 교류 활동 등 긍정적인 체류 경험을 바탕으로 방문객이 지역사회와 유대감을 형성하고 지역 정착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상의 군수는 “공모사업을 계기로 대동면이 삶과 철학이 공존하는 ‘인문학 마을’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생활인구 유치로 지속 가능한 지역 활성화 모델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평=최일균 기자 6263739@gwangnam.co.kr

영산 월평마을에 54억 투입...5만㎡ 면적 3MW 규모
장세일 군수 “농촌 새 수익 모델·지역경제 활성화”

영광군이 영농형 태양광 개발을 통해 농촌의 새로운 수익 모델 창출과 탄소중립 실천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11일 군에 따르면 최근 영산면 월평마을에서 마을주민이 주도해 전국 최대인 3MW 규모로 추진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의 1단계(1MW) 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

▶관련기사 15면

준공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장세일 영광군수,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전남도 의원, 영광군의원, 발전사업자 등 관계기관과 마을주민 200여명이 참석했다.

영산 월평마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는 전남도 주관으로 사업 부지를 공모·선

정한 이후 약 3년만에 영광군, 마을주민과 함께한 성과물이다.

총 54억원을 들여 영해간척지 약 5만㎡ 면적에 3MW 규모로 조성된다. 이번 1단계 조성으로 본격적인 상업 운전이 들어간다. 서영광 변전소가 신축되는 2026년 하반기엔 2단계 2MW도 마무리될 예정이다.

영산 월평마을 영농형 태양광은 전국 최대 규모 상용화 모델로서 실증효과는 물론 지속 가능한 최적의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으로 주목받는다.

주민이 농촌소득 증대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자발적으로 조합을 만들어 주민 주도형 개발이익 공유 실험을 한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월평마을 주민들은 2022년 10월 월평햇빛발전협동조합을 설립, 조합이 사업주체가 돼 발전수익을 토지소유자와 경작자, 마을주민 모두가 함께 햇빛연금을 공유한다. 월평마을 28가구가 가구당 매월 11만8000원씩 연간 142만원을 지급받는다. 지역경제 활성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새로운 이정표로 평가된다.

또한 영농형 태양광 단지 기반으로 월평마을은 향후 전국 지자체, 농민, 단체, 기관 등 견학과 시찰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농촌 소득 불균형 해소와 인구 유입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장세일 군수는 “영농형 태양광은 농촌의 새로운 수익 모델로 자리 잡고 있으며, 탄소중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계획이다”고 말했다.

영광=정규필 기자 ykjp98@gwangnam.co.kr



‘K-관광섬 흑산도 탐조대회’ 성료 신안 흑산도에서 열린 ‘K-관광섬 흑산도 탐조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가족과 함께하는 탐조여행’을 주제로 열린 행사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10개 팀이 참여, 총 115종의 새를 흑산도와 홍도에서 기록했다. 천연기념물인 흰꼬리수리(신안군 상징새)를 비롯해 검은머리물떼새 등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 야생생물 1·2급인 법정보호종이 11종이나 기록되는 쾌거를 거뒀다. 사진제공=신안군

“영산포 숙성 홍어·한우 맛보러 오세요”

나주시, 23~25일 영산포 홍어·한우축제 개최

숙성 홍어를 맛볼 수 있는 먹거리 축제가 5월 나주 영산포에서 열린다.

나주시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영산강 둔치체육공원 일원에서 제21회 영산포 홍어·한우축제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나주지역 최장수 음식문화 축제인 영산포 홍어축제는 올해부터 영산포 홍어·한우축제로 명칭을 변경했다.

특히 폭 삭힌 홍어, 묵은김치, 찰진 돼지 수육을 곁들 홍어삼합에 명품 나주 한우를 더한 남도 미식 대향연이 더 풍성하게 펼쳐질 예정이다.

또 6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숙성 홍어를 소재로 시식과 홍어 무침 나눔, 50% 할인

판매, 경매, 4행시, 상식퀴즈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진행된다. 노안 정고집, 다도 참주가를 비롯해 숙성 홍어와 찰떡궁합인 남도 막걸리 10여종을 맛볼 수 있는 전시·시음 부스도 운영해 미식·애주가들의 입맛을 자극한다.

축제 분위기를 한층 띄워줄 초대가수 공연도 기대를 모은다.

미스터트롯 장민호와 효녀 가수 현숙을 비롯해 현진우, 차하린 등이 영산강을 배경으로 화려한 무대를 선보인다.

25일 오후에는 영산강 밤하늘을 수놓을 불꽃쇼도 예정돼 있다.

관광객들이 사진 속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꽃밭 곳곳엔 포토존과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이다.

윤병태 시장은 “나주 영산포를 넘어 전라도 대표 음식이자 건강에 좋은 보양식인 숙성 홍어와 더불어 명품 나주 한우를 이번 축제를 통해 전국 미식가들에게 선보일 계획이다”며 “꽃양귀비가 만발한 아름다운 영산강에서 가정의 달 5월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나주=조환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한국인 권리 찾은 청소년, 영암군에 손편지

“많은 것들을 도와준 통합사례관리팀에 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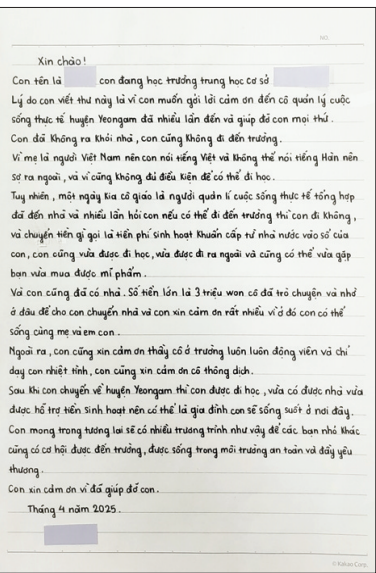
12년 만에 한국인의 권리를 찾은 영암의 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영암군에 감사의 편지를 보내왔다.

11일 영암군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A양은 베트남에서 살다가 3년 전 입국, 올해 2월 전입신고를 마치고 영암 군민이 됐다.

한국인 아버지와 베트남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A양은 3살 무렵 부모의 이혼으로 외가인 베트남으로 보내져, 베트남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 마쳤다. 이후 지난 2022년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다.

한국에서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길 원한 어머니의 바람으로 한국에 돌아왔지만, 아버지의 건강, 어머니의 경제적 형편 등으로 의무교육도 받지 못하며 위기 속에 방치되다시피 했다.

영암군은 공교육과 복지 등의 사각지대에 놓인 A양을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목록에 올려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도움의 손길을 전했고, ‘교육을 받을 권리’, ‘사회보장수급권’ 등 사회적 기본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12년 만에 한국인의 권리를 찾은 영암의 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영암군에 감사의 편지를 보내왔다.

지원했다.

이에 A양은 “많은 것들을 도와주는 영암군청 사례관리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손편지를 전했다.

이어 “영암으로 이사 한 후 가족과 함께 계속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혔다.

영암=한정국 기자 hck1342@

3만2000t급 일본 크루즈 여수항 입항

흥국사 등 관광지 유람

일본 크루즈 ‘미츠이 오션후지호’가 600여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싣고 여수항을 찾았다.

11일 여수시에 따르면 미츠이 오션후지호는 길이 198m, 무게 3만2000t 규모 선박으로, 일본 MOL 선사가 작년 초 신규 취항한 국제 크루즈다.

지난 9일 여수를 찾은 관광객들은 10시간가량 여수에 머물며 해상케이블카와 흥국사 등 지역 대표 관광지를 유람했다.

이번 입항은 여수시가 지난해 ‘도쿄 포트세일즈’에 참가, 기업 간 거래(B2B) 응답을 통해 MOL사와 교류를 시작하고 지난 2월에는 선사 관계자를 초청해 항만시설과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팸투어를 계기로 성사됐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